지역 메아리

고창군, 통합숲가꾸기사업 추진

고창군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해 산림의 생태·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통합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성송면 판정·하고리 일원 152ha 산림에 2억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솎아베기(정량간벌)를 실시하고 이중 17.1ha에 대해서는 산물수집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나무가 굵고 곧게 자라 산주의 소득이 증가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수원함양과 대기정화 효과가 증가한다"며 "산주들이 숲가꾸기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다양한 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숲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산림조합 김승일 과장 금융발전 유공표장 받아

서민 금융 저축부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부안군 산림조합 금융과 김승일 과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융발전 유공표장을 받았다.

지난 31일 서울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표장을 받은 김승일 과장(사진)은 "오세준 조합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들이 혼연일체 되어 산림조합 금융 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하는 등의 노력의 대가로 수상한 것이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특히 김과장은 부안군 산림조합원님을 비롯한 금융거래 고객분들을 위해서 친절과 서비스 제공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안군 산림조합 금융이 일취월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서, 인권보호 실천 톡 시간 가져

고창경찰서(서장 박헌수) 청문감사실이 대민 접점부서 근무자들이 한데 모여 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실천 톡의 시간을 가졌다.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주민과 최 접점에서 만나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인이 겪었던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며 보완할 점 등을 토론 앞으로 주민상대 인권보호에 앞 장 서자고 다짐하였다.

박헌수 서장은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적 권리인 만큼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중심의 인권존중 경찰활동으로 더욱 신뢰받는 선진 경찰이 되자."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유명 싸움소들의 힘겨루기

정읍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성료… 최다 참여 · 백두급 '불사조' 우승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정읍시 덕천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개최된 제21회 정읍 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 11만여명의 관람객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난 31일 정읍시에 따르면 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전국 11개 시군에서만 개최되고 있으며, 금번 대회는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유명 싸움소 156두가 참가했으며, 경기가 많을 때에는 하루 49 경기를 치루기도 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정읍시에서 소싸움대회 참가 이래 최고로 많은 45두가 참여하여 한강급 4강에 입상하는 등 앞으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보였다.

전국민속 소싸움대회는 종별(체급)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을 제패한 싸움소들 뿐만 아니라 소싸움 매니아와 관람객들에게도 소싸움의 진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한바탕 축제의 장이 되었다.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내장산을 찾는 단풍 관광객들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관람객들이 관광버스와 자가용으로 원거리도 마다않고 소싸움 경기장을 찾아주어, 정읍 전국민속소싸움 대회의 인기를 실감나게 했으며, 특히 881kg이상 대백두급에서 금년도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불사조와'와 '강남스타'가 관록을 보여주듯 힘과 기술의 맞대결에서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며 종별 경기를 거듭 할 수록 수준 높은 실력을 선보여 소싸움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박진감 넘치고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게 했다.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정읍시 덕천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제21회 정읍 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21회 정읍전국민속소싸움대회 체급별 우승은 백두급에서 경북 의령군 하준호씨의 '불사조', 한강급에서는 경북 의령군 김광호씨의 '갈지마', 태백급에서는 경북 청도군 조장례씨의 '악돌이'가 우승했으며, 1위 시상금으로 백두급 6백만원, 태백급 5백만원, 한강급 4백만원씩 지급했다.

정읍시는 정읍 민속소싸움대회가 전국 최고의 대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도 대회에는 더욱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를 준비하여 한층 더 신명나는 소싸움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2019년도 부터는 정읍시 내장저수지 아래 월령마을 인근에 11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농촌테마공원을 건립하고, 새로운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진 테마공원내 다목적공연장에서 소싸움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막바지 총력

김생기 정읍시장, 국토부 소관 4728억 규모 5개 사업 건의 · 해결방안 모색

김생기 정읍시장은 국토부 소관 정읍시 최대 현안사업 해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가예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31일 국정의 중심에서 여념이 없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정읍시 현안사업인 250억 규모인 '도시재생 뉴딜 시범 공모사업'을 비롯한 국토부 소관 4,728억 규모의 5개 사업에 대하여 건의하고 정읍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고향인 정읍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과 함께 정읍시민들에게 안부를 전했다.

김시장은 이날 김현미 장관 면담이 끝나자마자 바로 국회로 달려가 환노위,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접촉하여 18년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심의단계에서 증액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시에서 건의한 사업은 국토부 소관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250억), 광역상수도 급수체계변경(378억), LH 영구임대아파트 건립(300억), 정읍 RFT)국가산업단지조성(2,500억), 동진강 지방하천 정비 및 국가하천 승격(1,300억원)과 예결위 소관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383억), 최치원과 정극인의 태산선비원건립사업(296억), 기상인체험교육관건립(74억), 월령습지 보호지역 토지매입(13.6억), 내장산국립공원 안전탐방로 조성(20억), 한국화학연구원 전북분원 설립(200억), 안전성평가연구소 대전본소 정읍이전(100억), 한국방사선진흥원 설립(539억)방사선 백신전용 특수시설 확충사업 등 총 14개 사업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AI · 구제역 차단방역 총력

비상방역대책상황실 거점소독장소 운영

부안군이 효과적인 AI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비상방역대책상황실 및 거점소독장소 운영 등 선제적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AI·구제역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축산단체,관계기관,축산농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농가예찰활동을 강화,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철새정보알림SMS 운영하는 등 방역관리를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군은 이달부터 거점소독장소 1개소(부안군 부안읍 순환남로 310 조사료유통센터 내)를 운영하며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축산관련차량은 내·외부 소독 및 운전자 소독을 하기로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AI·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농가가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한 백신접종과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가 필요하다"며 "축산 관련 행사나 모임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2일부터 공공비축미 정부수매 시작

정읍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1만6,151톤 수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의 수매물량은 지난해 1만4,360톤보다 5.5% 증가 되었으며, 전북에서 김제, 익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매입 품종은 신동진과 새누리 2개 품종으로, 읍면동 지정된 수매장소에서 12월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작년까지 벼 매입대금은 매입할 때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매입 가격 확정 후 사후정산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우선지급금제도를 폐지하고 매입가 확정 후 일괄 지급한다.

시는 본격적인 정부수매에 앞서 지난 10.24일 창고주 및 읍면동 직원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재고조사와 17년도 공공비축미 수매교육을 실시했으며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에 17년도 수매물량을 배정해 차질 없는 수매추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매입 물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고 최근 산지 쌀값이 오르는 추세여서 지난해에 비해 농가들이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도시 소비자 체험 가을걷이 한마당 체험행사

부안군이 도시 소비자 체험 가을걷이 한마당 체험행사를 지난 28일 하서면 석상리 일원에서 도시 소비자와 하서면 농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험행사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체험행사는 부안군이 지원하는 친 환경농업 재배 우수단지 중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도농교류 사업으로 하서면 미래영농조합법인에서 주 거래 소비자를 위한 체험행사를 진행됐다.

특히 부안 친 환경농산물을 애용하는 도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가족 등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모내기 한 친 환경 쌀을 직접 수확하고 고구마 캐기 체험과 논두렁 가을운동회 등을 통해 농부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했다.

체험행사에 참여한 한 도시 소비자는 "현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벼베기 과정을 체험하고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맛과 품질이 우수한 농작물을 구입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안군 이동근 농업경영과장은 "도시 소비자 초청 친 환경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만들고 다양한 소비처를 개척해 농가소득 향상과 친 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